무제

**S#1 환상 속에서 춤을 추는 그**

Inst.

몽환적인 나무들에 둘러 쌓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의 그

비가 오지 않는 배경과 달리 비 오는 사운드가 겹쳐 들려온다

밝았다, 어두웠다 반복되는 빛은 몽환성을 더 강조시킨다.

Inst.

춤을 추던 그가 카메라 밖으로 빠져나간다. 텅 빈 공간에서 들려오는 알람 소리

**S#2 아침의 그**

Inst.

창문 밖으로 비가 오는 모습이 보인다.

알람 소리가 거세게 울린다. 그는 찌뿌둥한 표정을 하며 눈을 뜬다.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한 모양. 조심스럽게 손가락 근육 하나하나, 팔 근육 하나하나를 깨우는 모습이었다. 천천히 손을 피는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보인다. 잠에서 깨려는 그의 모습이 아래에서 비추어 진다, 발바닥이 약간 더러워진 모습. 그는 눈을 다시 감는다.

**S#3 학교와 그**

[N.a.] 남학우1 : 아무래도 좀 어색하단 말이지

눈을 뜬 그는 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다. 그의 주변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이 보인다.

여학우1 : 쉬는시간 몇 분까지였지?

여학우2 : 35분, 35분

[N.a.] 여학우1 : 15분이면 충분하다, 과제 한 번만 보여줘. 이렇게 부탁한다 싹싹 빌고 있어 나 지금?

[N.a.] 여학우2 : 지금 보냈다. 완전 다 따라 베끼면 안된다.

분주하게 노트북 타자를 치고 있는 여학우의 손가락이 눈에 들어오는 그였다. 유난히 타자 소리와 움직임이 거슬린다. 다리를 떠는 모습,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 크게 들어오는 그였다. 그의 눈빛을 의식한 여학우는 모니터의 방향을 살짝 튼다.

남학우2 : 이번 주제 재밌더라, 간만에 안 잤어.

여학우3 : 현대 무용 재밌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달까?

시끄러운 앞자리 학우들의 모습. 이내 정신이 없었다는 듯 다시 눈을 감고 천천히 엎드리는 그였다. 그의 앞으로 누군가가 지나간다.

**S#4 그의 사고**

웅웅거리는 강력한 음악 소리와 비트가 광장을 가득 메운다. 스트릿 공연을 한창 하고 있는 날 좋은 오후였다. 비트를 더 느끼기 위해 귀가 좋지 않은 그는 손으로 귀를 누른다. 더 명확하게 들리는 울림 소리. 모두가 공연팀으로 시선이 가 있는 모습. 몸을 풀기 위해 준비하던 그의 눈에 발작 하고 있는 한 친구가 보인다. 비트에 묘하게 맞추어 발작하고 있는 모습, 기괴하다. 도와주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였다. 발작하는 그의 손부터 발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가 그를 탁 치고 달려가 발작하는 친구를 돕는다. 가만히 있던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

그는 다시 잠에서 놀랜듯 깬다. 강의실이다.